공간과사회 2016년 제26권 1호(통권 55호): 79~138
http://dx.doi.org/10.19097/kaser.2016.26.1.79

특집논문 |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The Formation Process of Energy Citizenship in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een through the Case of SUNGDAEGOL Village in Seoul

박종문**·윤순진***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부터 에너지 전환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정보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참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개인적 요인과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성향,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에너지운동이 심화되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서울대-연세대 협력연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윤순진의 지도로 수행된 박종문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박사과정생 (pjm304@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겸무연구원(ecodemo@snu.ac.kr)

www.kci.go.kr

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좀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힘쓰면서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주요어: 에너지 전환, 지역공동체,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시민성, 성대골, 해방적 파국, 탈바꿈,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1. 서론

오늘날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환경·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나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재인식되고 있는 핵에너지 안전성 문제,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등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두와 심화로 에너지 이용방식을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조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에너지 시민성이 새로운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 안전하고 청정하며 윤리적인 에너지 이용 방식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단위에서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수요관리 또한 강화해감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간극을 줄여가는 '지역에너지체제'는 바로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윤순진·이유진, 2008; 박진희, 2009).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을 둔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체제에서 에너지 수요 저감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제로의 변화를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 한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은 손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경성에너지체제로 불리는 기존 에너지체제

www.kci.go.kr

에 관성(momentum)이 작용하기 때문이다(윤순진 등, 2011). 즉, 경성에너지 체제의 인프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체제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완강히 거부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사회갈등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기존 에너지체제가 제공하는 편리와 안락함에 익숙해져 변화에 소극적이거나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기존 에너지체제에 잠겨 있는(locked-in) 시민의식 역시 에너지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이필렬, 2005; 윤순진, 2008, 2011; 윤순진 등, 2011).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는 누구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에너지문제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감하고 자신의 에너지 소비행위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인 에너지 생산자로 에너지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의식과 실천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바인-라이트(Devine-Wright, 2007)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나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성향을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으로 개념화했다.

석유 정점(peak oil)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저감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토트네스(Totnes), 독일의 윤데(Jünde), 오스트리아 무레크(Mureck)와 귀씽(Güssing), 덴마크의 삼쇠섬(Samsø Island), 일본 구즈마키 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전환마을운동(transition town movements)이 한창이다. 국내에서도 부안 등용마을, 임실 중금마을, 홍성 홍동마을, 산청 갈전마을, 통영 연대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주도의 에너지자립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시에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에서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전환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www.kci.go.kr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와 같은 시민참여적 에너지 전환운동은 에너지 시민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자들은 에너지 시민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게 되었을까? 에너지 시민성은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 과정에서 함양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과정이나 방식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이 길러지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에너지 시민성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왜 어떤 시민은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함양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한지, 에너지 시민성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이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에너지 전환운동이 지역주민의 에너지 시민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운동 또는 에너지 전환운동이 가장 먼저 추진된 '동작구 성대골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사례 연구(case study)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와 인식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에너지 시민성의 특성,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대골 주민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성대골 주민들은 에너지 시민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성대골 주민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에너지 전환운동과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고

www.kci.go.kr

3절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4절에서는 성대골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의 경과에 대해 검토한 후, 5절에서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현된 에너지 시민성의 특성과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6절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파국적 해방과 탈바꿈, 에너지 시민성

근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 규정한 울리히 벡(Ulich Beck, 2015)은 지구적 위험(global risk)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side-effect)이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들에 부정적인 부대효과(the negative side effects of goods)가 있을 수 있듯이 나쁜 일들에도 긍정적인 부대효과(the positive side effects of bads)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벡은 이를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을 통한 "탈바꿈(Verwandlung, metamorphosis)"으로 개념화했다. 즉, "지구적 위험의 숨겨진 해방적 부대효과(hidden emancipatory side effects)"(Beck, 2015: 79)가 바로 '탈바꿈'이란 것이다.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파국을 목도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 변화(transformation)를 도모하게 되고, 그러한 각성과 실천을 통해 개개인은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 또한 이전과는 달라진다. 이를 '탈바꿈'이라 한다.

지구적 위험은 그 위험이 현실로 발현한 국가에게는 파괴적이지만 지구적으로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낸다. 벡은 기후변화나 금융 위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방사능물질의 이동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핵발전사고 위험 또한 지구적 위험의 대표적

www.kci.go.kr

사례이다. 사실 독일에서 1998년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한 당시 사회민주당(SPD) 정부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서 가동 중인 핵반응로의 평균 수명을 32년으로 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 탈핵을 선언했던 데는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 사고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 이전부터 독일에서는 반핵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체르노빌 핵발전사고와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한층 더 핵발전의 위험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2010년 당시 독일 정부(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연합, 자유민주당의 연정)는 핵반응로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씩 연장하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했으나 다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애초의 목표년도에 1년의 여유를 두고 다시 2022년까지 단계적 탈핵을 결정하게 되었다. 두 번의 핵발전 사고는 독일의 경우 탈바꿈을 이끌어낸 해방적 파국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왜 독일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나 스웨덴, 벨기에 등 몇몇 국가들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걸까? 이는 또 다른 연구를 요구하는 문제이지만 벡의 논의에 따르면 그러한 핵발전 사고로 탈바꿈을 한 시민들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탈바꿈을 시도한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 전체의 탈바꿈을 이끌어낼 정도의 사회적 역량을 발휘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찍이 1972년에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가 주창한 쟁점-관심 주기이론(Issue-attention cycle theory)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운스에 따르면, 어떤 문제가 갑자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 짧은 기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다가 아직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윤순진, 2006). 쟁점-관심 주기는 문제 이전 단계(the pre-problem stage), 열정 충만기(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문제 해결 비용 인식기(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 대중적 관심 쇠퇴기(Gradual decline of intense public interest), 문제 사후 단계(The

www.kci.go.kr

post-problem stage)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어떤 문제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별로 인식하지 않다가(1단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느끼면서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열정과 확신을 갖지만(2단계),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사회구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3단계), 대중적 관심이 쇠퇴해 버린다(4단계). 일반대중의 관심은 이제 새로운 문제로 쏠려 기존 문제는 대중적 관심의 중심영역에서 물러나지만 때때로 관심의 대상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5단계). 쟁점-관심 주기이론이 대부분의 정책의제에 대한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로 활용되었지만 환경문제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분야의 논문과 서적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예외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다운스의 쟁점-관심의 주기이론은 두 번의 7등급 핵발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발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국가들을 설명하는 유효한 자원이 된다(윤순진, 2006).

하지만 그와 달리 핵발전이나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기초로 탈바꿈을 하는 사회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여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핵발전 사고나 다양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목격한 후 에너지 문맹(energy illiteracy) 상황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을 통한 탈바꿈은 에너지 시민성의 발현과 내면화로 가능하다(윤순진·심혜영, 2015).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 서비스는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과 더불어,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서는 시민적 덕성을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이라 할 수 있다(Devine-Wright 2007; 윤순진, 2015; 윤순진·심혜영, 2015). 에너지 시민성을 담지한 시민은 에너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주어진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www.kci.go.kr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기기와 설비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에너지 시민성은 에너지 이용의 책임과 윤리를 추구하는 의식의 변화와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함께 내재된 개념이다(Devine-wright, 2007). 또한 마샬(T. H. Marshall, 1963)의 전통적 시민권(citizenship) 논의가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데 비해 에너지 시민성은 개인적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 타인과 미래세대, 나아가 다른 생물종에 대한 양보와 배려에 대한 가치가 더불어 강조된다.

에너지 시민성은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획득되거나 함양되지 않는다. 탈바꿈을 위한 각성은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만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즉 문제의 상호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찰도 각성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의 제공을 기초로 한 교육과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기존 에너지체제가 야기하는 영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안적인 에너지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다운스가 제기한 대중적 관심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에너지 시민성의 획득은 힘들어지게 된다.

(2) 에너지 전환운동 주체로서의 지역공동체와 에너지 시민성

전 세계 곳곳에서 전환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와 핵발전이나 석유 정점과 같은 에너지위기는 물론 지역 경제의 쇠퇴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전환마을운동이다.[1] 국내외적

1) 이 운동은 2004년 10월 아일랜드의 킨세일 성인교육대학(Kinsale Further Education) 롭 홉킨스(Rob Hopkins)의 강의에서 출발했다(이유진, 2013). 홉킨스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외의 종말(The End of Suburbia)>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후 자신들이 속한 인구 3,500명의 소도시 킨세일을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한 '에너지 하강행동 계획(Energy Decent Action Plan)'을 세웠다. 이후 1년간의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된 보고서를 킨세

www.kci.go.kr

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주민 출자를 거쳐 함께 운영되기도 한다. 에너지자립마을운동이 주로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시가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서 발생하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비윤리성, 현 세대의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성 등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도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워커와 드바인-라이트(Walker & Devine-Wright, 2008)는 영국 내 다수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들에 사용된 '공동체(community)' 개념에 주목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community renewable energy project)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진행과정(process)과 결과(outcome)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개방적이고, 사업 결과에 따른 이익이 지역적이고 집합적으로 분배될 때 이를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로 규정했다.[2)]

지역 에너지(local energy) 개념과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 개념은 지역성과 공동체성 중에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를 뿐 라빈스(Lovins, 1977)의 연성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전자가 지역단위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후 롭 홉킨스는 영국 토트네스로 이주한 후 전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전환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 다만 공동체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체는 지역주민 집단이나 지방정부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Walker & Devine-Wright, 2008; DECC, 2014).

www.kci.go.kr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시설의 소유와 통제, 에너지 전환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등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이정필·한재각, 2014). 전환마을운동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의 절약-효율화-생산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에 다양한 에너지자립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박진희, 2009).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 역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성이 있지만, 참여주체가 반드시 일정 지역 주민들로 한정된다기보다 지역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에 시민들이 같은 의식을 갖고 모인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형태의 공동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윤순진·심혜영, 2015). 결국 에너지자립마을과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은 모두 지역(area)과 공동체(community)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기초로 하면서 지역 분산적 에너지자립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는 특정한 지역(area)에서 구성원 간 공통의 유대감(common ties)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하는 집단(Hillery, 1955)으로서,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활용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응집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운동 주체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참여주체의 의식적 변화와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역 내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고 해서 에너지 전환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윤순진·이유진, 2008). 지역주민들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인 행위자가 될 때, 또 주민이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윤순진·이유진, 2008; 박진희, 2009; 이유진, 2010). 드바인-라이트(2007)에 따르면,

www.kci.go.kr

시민들이 에너지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며 에너지 전환정책의 지지자로 변화하게 된다.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전환운동의 의미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내부 구성원인 지역 주민이 에너지 시민성을 내면화하거나 함양하도록 할 수 있을까? 교육학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서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사회화, 관계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참여가 교육적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정지웅 외, 2002; 오혁진, 2006). 프라이어(Fryer, 1999)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필요(needs)와 우선순위(priorities)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습과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 성취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 내 학습(learning in community)'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D. Stein, 2002).

이렇게 교육적 기능을 가진 지역공동체는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이정필·한재각, 2014). 에너지 시민성의 획득과 함양이 학습을 필요로 한다면 지역공동체에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질 때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후 다른 재생에너지사업을 한층 더 쉽게 수용하게 되며 좀 더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이용에 나서게 된다(Walker & Cass, 2007). 민주적인 공동체 에너지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지역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행동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촉매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Walker & Devine-wright,

www.kci.go.kr

2008). 결국 지역공동체는 의미 있는 교육공간이 되며 이는 에너지 시민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공동체가 학습장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하여 구성원의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있다. 윤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 시민조직이 지역학습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역 시민조직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교육 기회와 학습 여건을 제공했다. 이현애(2004), 허준(2006), 조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 사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압력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환경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학습 과정이 진행되었다(이현애, 2004). 또한 전라북도 부안에서 있었던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학습과정이 나타났고, 주민들이 반핵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운동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고 운동 담론이 공동체 내부에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다(허준, 2006). 서울시 재개발지역에서 마을만들기의 환경교육적 의미에 주목한 조은정(2008)의 연구에서도 주민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계'와 '경험,' '실천'과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및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 지역에서도 공동체가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운동에 주목한 연구들로 '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www.kci.go.kr

에너지자립마을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에너지자립의 기술적 가능성이나 경제적 효과 등 정책적 관점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주민 주도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조명하고 주민 공동체의 중요성과 주민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이현민 2008; 박진희 2009; 이유진 2009, 2010, 2012; 이승지, 2011; 권용덕 등 2012).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해외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사례에 주목해 국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국내에서도 초창기 주민주도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온 사례에서 마을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경험적 발견들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그에 따른 의식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고 주민 참여와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시민 차원에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책임과 실천을 강조한 연구들은 에너지 시민성의 개념과 공동체를 통한 형성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박진희, 2013; 이정필·한재각, 2014; 홍덕화·이영희, 2014; 윤순진·심혜영, 2015). 현재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연구들은 독일이나 영국 등의 해외나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 운동과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에너지 시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지만, 실제 에너지자립마을이나 협동조합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이 에너지 시민성을 어떻게 획득하거나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루는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과 에너지 시민성 형성 간의 관계를 관련 사례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등장하고 있지만 연구사례가 부족한 도시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하여 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주민들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운동을 펼쳐왔고, 2012년부

www.kci.go.kr

터 2014년까지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진행한 뒤에도 에너지 전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대골 주민들의 에너지 시민성과 관련한 의식적 변화과정과 특징, 이러한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1) 사례 연구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경험 정도와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사례연구방법은 '어떻게' 또는 '왜'와 관련한 설명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건, 제도, 과정 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주로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에 대하여 다수의 분석 단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이다(Yin, 2005; 남궁근, 2010).

이 연구는 성대골 에너지 전환운동 사례라는 단일 사례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서는 다중사례연구가 단일사례연구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례가 매우 특이하거나 중요한 사례인 경우 혹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단일사례연구가 더 적합하다(Yin, 2005). 서울시 성대골 사례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 드물게 에너지 전환운동을 주민들이 먼저 직접 주도하여 시작했다. 그러한 성대골의 시

www.kci.go.kr

도와 경험이 오히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성대골은 서울시 지원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창기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2.06.05; 성대골 착한에너지지킴이들, 2013). 그뿐 아니라 성대골 마을처럼 적정기술 실험을 진행하고 주민이 직접 인근 학교의 에너지·기후변화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마을의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의 직접적인 생산을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대골 공동체는 에너지 전환운동을 주민 주도로 상당기간 동안 진행해왔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참여 기간과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이기에 이를 취하여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했다.

2) 연구 설계

성대골 공동체라는 단일사례에 초점을 맞추되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층위를 복합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 공동체 관련 문서정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공동체 에너지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와 참여 주민 등 11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방식으로 진행했고 개인당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 회당 1시간가량 진행했다.[3] 분석 단위별, 자료수집방법별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피면접자)들은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를

3) 대부분의 경우 1회당 1시간 내외 소요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1회당 40분이나 1시간 40분 정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반구조화면접법을 사용함으로써 면접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면접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www.kci.go.kr

<표 1>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 단위 및 자료수집단위

단위	지도자 심층면접	구성원 심층면접	참여 관찰	문서정보 내용 분석
공동체	· 공동체의 형성과 흐름 ·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	· 내부자 시선으로 본 공동체의 모습	·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	· 공동체의 형성과 흐름 · 에너지 전환운동 내용
공동체 구성원		· 개인별 참여 양상 · 개인별 에너지 시민성	· 구성원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양상	· 구성원의 에너지시민성 관련 내용
외부 환경	· 주민 에너지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정보의 풍부함과 정보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연구에 사용될 자료의 원천이나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남궁근, 2013; Yin, 201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표 2>와 같다. 마을 주민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부분이며 한 명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다. 성대골 지역공동체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는 주로 30~40대로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젊은 주부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참여 시기는 2010년 10월부터 조사가 종료된 2014년 10월까지 다양하며 참여 기간과 참여 여부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시작한 경우도 있고(A, B, H, J), 몇몇 참여자들은 출산이나 직장생활로 마을 활동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기도 했다(C, F, I). 어떤 참여자는 이사를 가면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D), 어떤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새롭게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E, G, J, K). 특히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마을로 이사한 경우(G, K)도 있었는데,[4] 이들은 마을활동에 참여

4) G는 학생공모전으로 2012년 4월에 마을에 처음 방문했으며, 2012년 12월에 에너지자립마을 회의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그가 마을 주민이

www.kci.go.kr

<표 2> 연구 대상자(피면접자)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가족	참여 시기	참여 특성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빈도 및 내용	
A	여	40대	남편, 딸 2	2010.10.	초기부터 지속적 참여	상시 참여	에너지협동조합 대표, 탈핵운동, 기후변화·에너지 강의
B	여	40대	남편, 아들 1	2011.04.	초기부터 지속적 참여		에너지협동조합 팀장, 탈핵운동, 기후변화·에너지 강의
C	여	30대	남편, 아들 1, 딸 1	2011.03.	초기부터 참여, 잠시 중단 후 재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탈핵운동, 기후변화·에너지 강의
D	여	40대	남편, 아들 1, 딸 1	2011.02.	초기부터 참여, 현재 중단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기후변화·에너지 강의
E	여	30대	남편, 딸 2	2014.10.	공동체 형성 이후 참여		기후변화·에너지 강의
F	여	30대	남편, 딸 1	2011.03.	초기부터 참여, 잠시 중단 후 재개	간헐적 참여	공연연출가, 에너지 전환운동과 도서관 자원 활동
G	남	30대	독신	2012.04.	공동체 형성 이후 참여		마을 소셜벤처 대표, 에너지운동
H	여	40대	남편, 아들 1, 딸 1	2011.02.	초기부터 지속적 참여	일시적 참여	주부, 주로 도서관 자원 활동
I	여	30대	남편, 아들 1	2011.02.	초기부터 참여, 잠시 중단 후 재개		
J	여	60대	남편, 아들 2	2012.07.	초기부터 지속적 참여		
K	여	40대	남편, 딸 1	2013.02.	공동체 형성 이후 참여	비참여	생협운동가, 주로 도서관 자원 활동

하면서도 '관찰자'의 입장에서 마을주민들을 지켜봐왔다고 한다. 마을 대표 A에 따르면, 에너지협동조합인 '마을닷살림'의 출자자는 34명인데, 이 연구의 피면접자들은 모두 마을기업에 출자를 한 주민이었다.[5] 다시

5) 된 것은 2013년 말이다.

www.kci.go.kr

말해서 참여 정도를 떠나서 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에 동의하고, 기여한 측면이 있는 주민들이 이 연구의 피면접자들이다.

4. 성대골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1) 공동체의 특성

연구 대상지인 성대골 공동체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과 4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6] 공동체의 형성 배경에는 2010년 마을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이 있었다.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없었던 상황에서 '풀씨모임'이라는 주민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A는 희망동네(희망 나눔 동작네트워크)로부터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만들기'라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운동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A가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약 10개월간의 모금 끝에 2010년 10월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후 어린이도서관에 마을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서관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모인 단체인 '성대골사람들'이 맡고 있으며,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공간 임대료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고 자원활동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운동은 어린이도서관에서 2012년부터 전개되어 오다가 2013년 말부터 에너지협동조합 '마을닷살림'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너지슈퍼마켓'으로 공

5) 생협운동가인 K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운동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마을주민으로서 힘을 보태며 운동을 지지해주고 싶었다"라는 이유로 마을기업에 출자했다(심층면접).

6) 동작구 전체 또는 상도 3, 4동 내에서도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지역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성대골 마을공동체는 2010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공동체로 한정한다.

www.kci.go.kr

<표 3> 마을공동체 내부 단체와 운영 공간 현황

단체	단체의 특징	운영 공간	공간의 기능	개시일
성대골 사람들	어린이도서관 운영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어린이 도서관	지역 내 어린이 대상 도서 대여 및 육아교육의 공간	2010.10
		마을학교*	마을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	2012.04
마을닷살림	주민 출자를 바탕으로 한 마을기업(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 슈퍼마켓	성대골의 에너지사업 공간	2013.12
블랭크	동네 청년들의 소셜벤처	청춘플랫폼 (나눔부엌)	- 동네 청년들의 사업공간 - 주민 커뮤니티(나눔부엌) 공간	2013.04

* 마을학교는 2012년 방과 후 교실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방과 후 교실 기능은 종료되고 마을 내 에너지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성대골 착한에너지 지킴이들(2013), 문승규(2014), 오마이뉴스(2015.1.8), 아시아경제(2015.1.12) 재구성.

간을 옮겨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청년들이 만든 커뮤니티 관련 소셜벤처 기업인 'BLANK'가 에너지 전환운동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7] 이렇게 성대골 공동체는 내부에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에너지'만이 이 공동체의 유일한 테마가 아니라 공동육아, 교육, 공동살림, 커뮤니티 등 다양한 테마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성대골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주부 중심'이라는 점이다. 처음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자원활동가의 대부분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었다. 이 점은 초기 어린이도서관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문제가 아이들과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점이 '엄마들'이 운동을 지속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7) <BLANK>는 마을닷살림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했고, <BLANK>의 대표가 마을닷살림의 이사진에 속해 있다.

www.kci.go.kr

2) 성대골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의 주요 흐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출발한 성대골 공동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그해 9월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우리 동네 녹색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열게 되었고, 이 교육과정 결과로 이듬해 1월부터 절전소 운동이 시작되었다.[8] 그 이후 에너지합창단 활동과 에너지축제, 에너지 강사활동까지 교육과 문화 차원에서 에너지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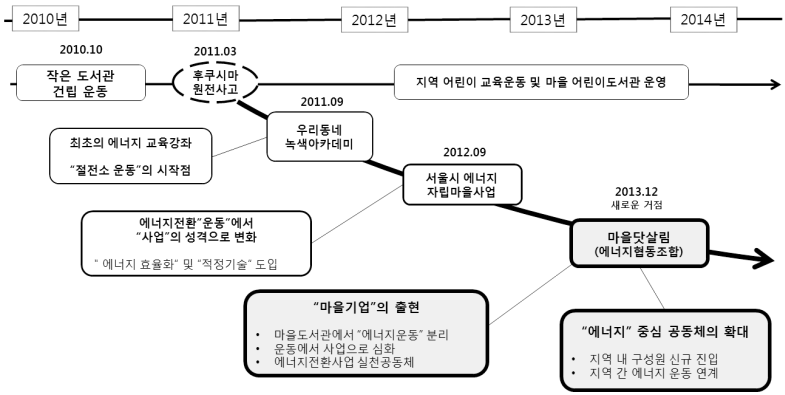
2012년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성대골은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 사업은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업 차원에서 펼쳐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2012년 사업비로 진행했던 '적정기술로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화와 적정기술을 마을에서 도입하는 계기였던 동시에 후에 마을기업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에너지협동조합으로서 마을기업인 '마을닷살림'의 등장으로 에너지 운동은 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나온 동시에, 마을에서 에너지효율화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직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성대골 에너지 전환운동은 이제 일상적인 사업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에너지 전환운동에 새롭게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 등장하고 성대골 이외 에너지자립마을이나 기존의 에너지협동조합과 연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대골의 에너지운동의 주요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8) 절전소 운동이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곧 생산이라는 취지의 운동으로 성대골에서 2012년 1월부터 진행된 최초의 에너지 전환활동이다. 주민들은 마을 어린이도서관의 벽면에 가구별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당해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가며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했다.

www.kci.go.kr

<그림 1> 성대골 공동체와 에너지 전환운동의 주요 흐름



출처: 박종문, 2015 재구성

5. 성대골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9]

1)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별 분류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운동 참여 정도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참여 정도의 차이가 에너지 시민성 수준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피면접자 11명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경향을 기초로 참여 집단을 일상적 참여자, 간헐적 참여자, 일시적 참여자, 비참여자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일상적 참여자' 집단은 가장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형태로 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다.[10] 이들은 일과를 에너지 전환

9) 5절의 1), 2)에서는 비참여자 K의 사례는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K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생협 활동가'라는 직업적 측면에서 환경과 에너지, 먹거리 등 다양한 측면의 활동을 경험하는 등 성대골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경로로 에너지시민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0) D의 경우 현재는 육아와 이사로 에너지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www.kci.go.kr

<표 4> 참여 정도에 따른 피면접자들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집단 분류와 활동 내용

참여자 집단	참여자	참여 내용			세부 내용
		교육	학습	활동	
일상적 참여자	A~E	●	●	●	· 상시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참여(교육, 학습, 활동)
간헐적 참여자	F	×	×	◑	· 간헐적 활동(어린이 교육과 공연)
	G	×	◑	◑	· 간헐적 학습(BRP사업 등) · 간헐적 활동(에너지카 제작 등)
일시적 참여자	H	○	×	○	· 일시적 교육(에너지 진단) · 일시적 활동(절전소운동과 에너지 진단 참여)
	I	○	×	○	· 일시적 교육(기후변화·에너지 강사양성교육) · 일시적 활동(절전소 운동 참여)
	J	×	×	○	· 일시적 활동(절전소 운동 참여)
비 참여자	K	×	×	×	· 참여 없음

주: ● 상시적 참여, ◑ 간헐적 참여, ○ 일시적 참여, × 참여 없음.

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데 활동 내용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강의, 에너지슈퍼마켓에서의 고효율 전기제품 판매, 에너지효율화사업 진행 등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간헐적 참여자' 집단은 일상적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성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활동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로,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시 거주민 대부분의 직업 활동이 마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간헐적 참여자 집단 사례는 각자의 직업과 에너지운동이 결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시적 참여자' 집단은 과거에 활동 참여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된 집단이다. 일시적 참여자들은 절전소 운동이나 에너지진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의 참여는 자발적이기

에너지운동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일상적 참여자' 집단으로 분류했다.

www.kci.go.kr

보다는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참여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몇몇은 에너지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험도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교육 수강경험이 다른 활동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시적 참여자들의 주요 활동은 마을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마을 활동에서도 도서관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非) 참여자(K)는 마을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에너지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마을 내 마을학교와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참여해왔다.

2) 집단별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경로

(1) '일상적 참여자'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경로

에너지 전환운동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적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매일 수행하는 활동 경험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었고, 그러한 자극은 교육과 학습 행동을 촉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최초의 동기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교육이었다. 교육은 일상적 참여자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일상적 참여자들은 에너지 문제를 많이 알리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나한테 전기가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다면 (…) 내 안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쓰는 전기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 나쁜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
> (C, 일상적 참여자)

www.kci.go.kr

교육 효과로 이들은 인근 학교에 강의를 나가거나 에너지진단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활동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편 부족한 역량을 자발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학습행동으로 이어졌다.

>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질문이 나왔을 때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해야겠다. 더 많은 아이들을 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 (E, 일상적 참여자)

> 냉풍기 만드는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만드는 걸 좋아해요. (…) 가까운 데서, 내 동네에서 우리 집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바로 가서 할 수 있잖아요.
> (B, 일상적 참여자)

또한, 일상적 참여자들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있었다. 강의를 하는 주민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강의에 필요한 교안을 짜고, 그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의 외에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 과학적인 거나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여서 함께 인제 책을 읽자고.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책을 읽어서 혼자 책 읽고 하면은 이게 (어렵고) 어느 정도로 책을 읽어가지고 같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나눠야지 혼자서는 이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 (C, 일상적 참여자)

> 내가 알아야 되니까. 저것도 배터리가 몇 와트인지 태양광이 몇 와트인지 그런 걸 알아야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

www.kci.go.kr

> 저거 해바라기 트럭(에너지카) 하는 것도 이제 그 전에는 딱히 관리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이게 고장인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인제 해서 그 차에 대해서도 배우고. (…) 처음에는 FIT 뭐, RPS, SMP 다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뭔지 그런 게 생소했었는데, 그래도 좀 듣고 들을 때마다 적으면서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딱히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 말인지 조금 이해는 가긴 하더라구요.
>
> (B, 일상적 참여자)

이렇게 일상적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에너지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활동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은 일상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욕구는 자발적인 학습을 반복적으로 펼쳐가는 자극제가 되었다. 결국 교육과 활동,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자극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2) '간헐적 참여자'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경로

간헐적 참여자들은 어떤 이슈가 자신의 관심사와 맞거나 자신의 전문성이 특정 활동에 필요할 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온 주민들이다. 이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뒤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기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상적 참여자들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공연연출가 F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제2회 에너지축제(2013년)와 제3회 에너지축제(2014년) 준비과정에서 기획과 진행 역할을 담당했다. 2012년 성대골을 주제로 학생공모전에 참가했던 G는 공모전 수상 후, 출품한 내용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되자 기초조사연구를 위해 마을 내부로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마을 내 에너지자립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재능기부 형태로 마을 당면 과제인

www.kci.go.kr

에너지카 제작, 에너지축제 기획, 마을기업 창립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간헐적 참여자들도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적 참여자들이 주로 활동 자체와 관련한 성취감을 느꼈다면, 간헐적 참여자들은 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 작업에 참여하여 '함께했다'는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 (에너지 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과정은 힘들었어요. 탈 만들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인형극도 쉽지가 않은데. 과정은 끝나서는 다들 이렇게 '우리가 해냈어~' 만족스러워하는. 우리가 같이 뭔가를 했다라는 성취감을 꽤 느꼈던 거 같아요.
>
> (F, 간헐적 참여자)

> 저의 보람은, 일단 가장 큰 보람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G, 간헐적 참여자)

에너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간헐적 참여자들의 경우, 에너지 인식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대화'와 '관찰'이었다. 즉, 마을 속에서 주민 간에 대화를 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 여기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항상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서당개 3년~ 하하. (웃음)
>
> (F, 간헐적 참여자)

> 저한테는 가장 컸던 거는 그런 활동들을 눈으로 보고 느낀 점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 대화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G, 간헐적 참여자)

www.kci.go.kr

이렇게 간헐적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더욱 더 깊숙이 속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문제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떤 행동에 나서는지 지켜보는 것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활동'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활동 자체를 통해 에너지 관련 인식이 직접적으로 향상되기보다는 마을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대화와 관찰'을 통해 에너지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간헐적 참여자들은 간접적으로 에너지 인식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었다.

(3) '일시적 참여자'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경로

일시적 참여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 활동에 주로 참여해 온 주민들로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 2011년 말에 시작된 초창기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운동은 2013년 말 에너지협동조합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시적 참여자 역시 에너지운동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일시적 참여자들은 공통적인 인식 형성 경로를 보인다기보다는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개인 사례별로 각기 다른 요인이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주민들과의 대화와 관찰이 일시적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교육을 받지는 않았고, 활동에 참여했어도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일시적 참여자들의 활동 참여는 간헐적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어떤 전문성을 발휘했다기보다는 '절전소 운동'처럼 주로 에너지 절약활동에 국한된 참여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나 보람도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참여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요금이 줄어든 것에 만족감

www.kci.go.kr

을 나타내거나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활동 참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 거진 그때는 같이 다하는 분위기로 갔었었구요. (…) 작년(이전)보다 많이 줄게 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뭘 그냥 조금 조금씩 그냥 아이들도 인제 생활에서 제가 하다보니까 으레 하게 되더라구요.
>
> (H, 일시적 참여자)

> 경제적으로 첫째 좋고 또 우리 아이들도 오면은 '야, 원전 하나 줄이려면 집에서도 다 절약해야 된다. 조금 어둡게 살고 필요한 만큼 쓰고 절약해라.'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고. (…) 원전 하나 줄이는 게 얼마나 보람 있어요. 지금 막 원전을 더 쓸려고 그러고, 우리 소비자들은 못 짓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
> (J, 일시적 참여자)

> 제가 이 절전에 관해서는 깊게 참여한 게 없어서 뭐. (…) 이거는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 일단 시작할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만들어놓고 그 뒤부터 체크를 해 나간 거거든요. 제가 특별히 뭐 한 건 없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
> (I, 일시적 참여자)

일시적 참여자들도 간헐적 참여자들처럼 대화나 관찰과 같은 상호작용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도서관 자원 활동을 하면서 견학 프로그램을 관찰하거나, 일상 속에서 이웃과 대화하면서 인식을 형성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게 되었다.

> 계속 (견학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웃음) 그게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가도 그러잖아요. 다 줄거리 뭐. 핵심은 거기에 맞추면 (다 비슷한 거고) 계속 그걸로 하시잖아요. (…) A 관장님이 여기서 견학오시면 다 해놓고 다

www.kci.go.kr

애기하시면서(…) (견학진행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저절로 다 알게 되었죠 뭐. (웃음) (J, 일시적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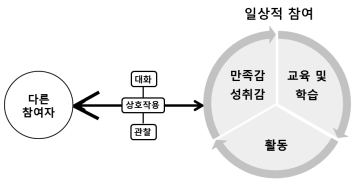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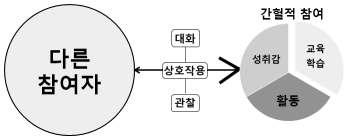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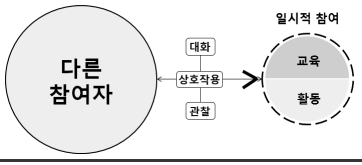
어느 분이 그걸 들으면, 모이게 되면 어떻게 애기를 해주시는 거죠. (…) 이렇게 옮겨 옮겨서 지나가다가 보면 엄마들이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이런저런 애기 하다가 '어, 누구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대~' 그럼 그분도 자기도 정수기를 없애던지 아니면 옆에 다른 분들한테 애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I, 일시적 참여자)

일시적 참여자들 중에서는 일상적 참여자들처럼 에너지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일상적 참여자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에너지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에너지 전환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일시적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교육 결과가 자발적인 운동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상적 참여자 C와 E가 기후변화·에너지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강의활동을 시작했다면, 일시적 참여자 I는 같은 과정을 수강하고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단은 집에서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발전소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는 강의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아~ 심각성은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막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거? 이게 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도 무척 크다는 것을 느꼈죠. …… 시든지 구든지, 일단 저희가 구하고 연결되는 게 먼저겠지만 사실 구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밑에서만 하는 것도 뭐 작은 씨앗일 수 있겠지만… 하~ 연결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함 같은 것도 좀 (느꼈죠)…… 그런 것들은 너무 무서우니까요. (H, 일시적 참여자)

www.kci.go.kr

<표 5> 참여자 집단별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참여자 유형	형성 특성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일상적 참여자	개인의 활동(참여) 중심 인식 형성	
간헐적 참여자	상호작용 (대화와 관찰) 중심 인식 형성	
일시적 참여자		

주: 원의 크기는 집단별로 영향을 미친 요소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화살표(→)는 요소 간 영향의 방향을, 화살표 끝모양의 크기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의미함.
굵은 실선은 영향의 크기가 큼을, 점선(--)은 요소 간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음을 의미함.

이렇듯 일시적 참여자들의 에너지 전환 활동 참여는 간헐적 참여자들처럼 관계 차원에서 공동체 활동을 돕기 위해 시도되었으나, 단발성에 그치면서 지속되지 못했고 참여자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교육은 일시적 참여자들에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러한 정보의 습득이 활동에 대한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시적 참여자들에게도 간헐적 참여자들에서처럼 대화와 관찰 등 상호 작용이 에너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활동과 교육, 학습 등 다른 자극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적이고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인식 형성 경로와 구분된다. <표 5>는 참여자 집단별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www.kci.go.kr

의 특징을 도식화한 것이다.

3) 집단별 에너지 시민성 형성 결과

(1) 공동체 참여 이전의 에너지 인식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 이전과 이후의 에너지 인식과 실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참여 이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태도와 에너지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에너지 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몇몇 연구 참여자들(A, K)을 제외하고는,[11]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크게 "요금 절약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절약하면서 살아왔다"와 "절약에 대한 관심 없이 에너지를 소비해왔다"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특히 대부분 주부로 구성된 성대골 공동체의 특성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습관이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에너지 절약습관을 들이도록 교육 받았던 영향이 컸다.

>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가 하셨던 잔소리 같은 거?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살갑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실생활로 돈을 내니까. (웃음). 그게 무시 못하거든요. (H, 일시적 참여자)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인식 자체를 거의 가지지 않았던 사례자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에너지는 단순히 늘상 '존재하는 것'이었고, 전기요금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11) A는 자신의 고향인 전북 부안에서의 방폐장 입지선정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간접적으로 경험한 측면이 있고, K는 개인적인 직업(생협활동가)적 측면에서 에너지문제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시민성을 형성해왔다.

www.kci.go.kr

우리가 전기 쓰면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그 뭐(…) 그 플러그를 뽑는 다든지, 아낌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몰랐죠. (J, 일시적 참여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습관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해왔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이용으로 촉발되는 문제들까지는 알지 못했다. 따라서 에너지 시민성이 에너지 이용에 따른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면, 공동체 참여 이전의 생활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2) 참여 이후 형성된 에너지 시민성의 내용

피면접자들은 분류된 집단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신들이 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를 생산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에너지문제가 다음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즉,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활동 참여 이전에 아이와 배우자 등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등으로 한정되었던 '관계의 범위'는 다른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에까지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사람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미 너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고 갑상선암이 되게 많이 퍼센트가 높거든요 거기는. 옛날에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가스렌지에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폐암 얘기가 많으니까 가정주부가 오히려 담배를 안 펴도 폐암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전기로 되어 있는 인덕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기료가 아무리 적게 나오는 인덕션이라도 내가 아픈 걸 걱정해서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내가 쓰는 전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

www.kci.go.kr

정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 그 아이들은 이미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덕션이) 있는데 치워버렸어요. (C, 일상적 참여자)

또한 피면접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에너지의 생산, 수송, 소비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보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에너지 문제를 '문제'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에너지 시민성에서 중요한 대목이며,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이 모여서 간다면 더디 가도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동네에서 조금씩 재미있게 에너지 자립활동을 하면서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좁은 땅에 빼곡히 원전도 짓지 않고 송전탑건설로 시골 할매, 할배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서 생산해서 가져오지 않아도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자립도가 생길 수 있도록 30년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독일처럼 의식변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D, 일상적 참여자)

음. 어쨌든 그렇게 자립이 된다는 거는 점차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거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어떤 식으로든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끊겼을 때 우리가 다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에너지자립이 된다면 안전하겠죠. (F, 간헐적 참여자)

www.kci.go.kr

부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줄이잖아요. …… 이 동네만 했어도 전기가 줄어가면, 이 전기(제품)를(을) 돌리려면 원전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전기를 끌어오는 데 그 주변에 다니는 선에 또 그렇게 방사능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만큼 전기를 적게 당겨오니까 원전을 지금 막 폐기하자 막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온난화현상 이런 거도 줄어들테고.

(I, 일시적 참여자)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성대골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피면접자들은 참여 정도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에너지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고 에너지 전환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모델이자 교육과 견학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문제와 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제 성대골 공동체가 몇 명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해내는 역할은 지금 마지막 보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라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버팀목이다. ……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구나. 그니까 그 일반 평범한 주부들이 에너지운동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부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례가 될 수 있고.

(A, 일상적 참여자)

씨앗이죠. 씨앗이고, 시발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씨앗을 나누어주는 거고 씨앗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씨앗을 버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소스들, 씨앗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거 같아요. 결국 키우는 건 자기 의지니까.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농사가 무르익고 있고 씨앗을 나눠주는 역할이긴

www.kci.go.kr

<표 6> 피면접자들의 공동체 참여 이전과 이후의 에너지 인식 비교

구분	의식적 차원		행동적 차원
참여 이전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		습관적 절약(요금 절감 목적)
			절약의식 없이 소비
참여 이후	에너지 문제 인식	에너지 소비의 책임, 타 지역민과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고려	의식적 절약 (전기요금 절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절약)
	에너지 전환 지지	에너지 이용체계의 변화에 동의	
	공동체 역할	에너지 전환운동 모델로 인식 확산에 기여	

하지만 "아 저렇게 농사지을 수 있구나. 저렇게 꽃 피우시는구나. 저렇게", "잘 키우면 이렇게 마을 분들이 변화가 생기고, '절전소'라는 표시를 했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구나)".

(F, 간헐적 참여자)

저희가요.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하겠지만 이렇게 견학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견학 온다는 건 일단 관심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일단은 듣고 가시면 생각을 안 하셨던 거보다는 진짜 콘센트 하나 뽑는 거에도 영향을 줄 거 같아요.

(H, 일시적 참여자)

이렇게 참여 정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에너지 관련 인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을 수년간 펼쳐나가면서 공동체 내부의 연결망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공동체의 활동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펼쳐왔고, 그러한 내부의 상호작용이 참여가 낮은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시민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ww.kci.go.kr

<표 7> 참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에너지 시민성의 차이

일상적 참여자	A	· 가장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소비해서, 자신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농사를 지어야 쌀이 소중함을 알듯이 에너지도 생산을 해봐야 더 소중한지 안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 분산적으로 생산이 필요하고, 그 지역 범위가 동별로 쪼개져야 한다.
	B	· 작게도 생산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 ·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 차원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지만 많이 퍼뜨려야 되는 에너지이다. ·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사조건이 좋다.
	C	·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고 에너지 정의에 기여할 수 있었고 생산을 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발전해서 쓴다는 것이 기쁘고 뿌듯하다. · 제약이 많아 집에 설치를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서 생산자가 되면 된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D	·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으로부터 벗어나서 피해를 받는 다른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이면서도 가장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지구환경과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다.
	E	· 에너지를 생산해서 외부로부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이면서 시급하게 우리에게 와야 될 에너지이다.
간헐적 참여자	F	·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비상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G	· 의미가 있고 점차 공감대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국가 정책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라고 다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고(폐기물),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일사조건이 좋지 않다.
일시적 참여자	H	·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 태양광 생산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고 생각을 못해봤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효율이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 아직 의구심이 들고 태양 없는 날(비오거나 흐린 날)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I	· 설치비용이 비싸고 빌라는 입주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www.kci.go.kr

		·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바람이나 물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다.
	J	· 생각해봤으나 고장이 잘 난다고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이 싸지면 설치해 볼 생각이다.
비 참여자	K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처럼 작게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가야 되고 바람직하다고 이해되는데, 한편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집단 간 에너지 시민성의 차이

피면접자들 모두에게 에너지 시민성이 발견되었지만 에너지 시민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7>에 제시한 대로, 참여 유형별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이나 시민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일상적 참여자 집단과 일시적 참여자 집단의 의견 차이가 매우 대조적이었다. 일상적 참여자들은 에너지 생산을 에너지 정의나 전환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실천'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시적 참여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투자'로서 일단 지출은 큰 데 비해 원하는 만큼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고장이 날 수 있고 관리가 번거롭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상적 참여자들도 에너지 생산에 나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일사 조건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를 매달고 다닌다거나, 가정 내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물리적 제한조건이 있을 경우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충분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여기 활동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전기요금을 많이 써서 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구요. 의식, 의식이에요. 내가 이걸 달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는 거예요. 이걸 달아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참여하고 나 하나라도 참여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써보자 해가지고

www.kci.go.kr

일단은 내가 써야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일단 달더라구요. 활동가들이 보면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의식이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B, 일상적 참여자)

나는 우리 집에는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못하는 건가? 나는 참여 못하나? (…) 그게 아니라 가능한 곳에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조합원이 돼서 나도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설치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생산자가 되는 거죠.

(C, 일상적 참여자)

이러한 차이는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상적 참여자들과 다른 참여자들이 대조적이다. 에너지 시민성이 에너지 전환 행동을 포함하는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때, 일상적 참여자들은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포괄적인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일상적 참여자들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특별한 쟁점이나 사건이 생기면 공동체 내부 에너지 전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서 마을 밖에서 벌어지는 탈핵 집회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탈핵운동이나 송전탑 관련해서 모이는 운동이나 동작구에서. 그래서 동작구 탈핵연대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월성 1호기 가동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그래서 그때 후쿠시마 4주년 되었을 때 3월 11일날 그때 이수역 이렇게 해가지고 노량진역까지 탈핵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서명운동이나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서 같이 안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C, 일상적 참여자)

www.kci.go.kr

<표 8> 참여자 집단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활동

집단 구분	활동의 내용
일상적 참여자	· 몇몇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 (일본산 수입물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원전가동반대 집회 참가 등) · 에너지 강의, 효율화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일상적 활동 · 에너지 절약 및 생산에 참여 또는 강한 참여 의향
간헐적 참여자	· 에너지 절약 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 활동 경험
일시적 참여자	· 에너지 절약 및 일시적 활동 경험

탈핵걷기대회 해가지고 흑석동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갔었고. …… 우리 같은 경우는 탈핵집회를 노량진역에서 해요. …… 일단 가면 내가 생각 없이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또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또 듣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인제 이래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참여를 하는 구나. (B, 일상적 참여자)

일상적 참여자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에너지 전환 행동을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 에너지 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에겐 다른 집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성대골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과 각 집단별 에너지 시민성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참여 형태나 정도에 따라 실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 전환운동에 대한 참여 여부와 정도가 에너지 전환의식과 에너지 전환행동 간의 차이를 좁히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경우, 무엇이 참여에 영향을

www.kci.go.kr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전환운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에너지 전환 실천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하게 된다면, 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개인, 공동체 내부 관계, 공동체 외부 등 다층적 수준에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참여 촉진 요인

참여 촉진 요인이란 구성원들이 에너지 전환행동에 더 몰입하게 되는 요인들로 주로 일상적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상적 참여자들은 에너지 전환 행동에 항상 참여하면서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기쁨을 얻고 있는 주민들이다. 왜 이들 주민들이 남달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을까?

① 개인 차원: 개인의 관심, 성향, 자기 계발 욕구

첫 번째로, 개인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상적 참여자 B는 성대골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과 태양광 에너지카(차량) 관리, 적정기술을 이용한 태양광 장치를 제작하는 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지만 주로 기계를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심에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나 장비를 스스로 만들고 다루었던 활동을 남달리 재미있게 느끼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러한 점이 마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충족되고 있다고 했다.

>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었던 거 같아. (…) 집에서도 이렇게 썰매 같은 거 뭐 스키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만들어서 하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만들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도 하는 거면 남편하고 둘이 웬만한 거 만들어서 해요. (B, 일상적 참여자)

www.kci.go.kr

두 번째로, 개인의 성향과 태도가 에너지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윤리적 생활태도(덕성)나 생활 속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중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상적 참여자 C는 어렸을 적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어렸을 적 우유당번을 하면서 느꼈던 분리수거에 대한 생각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즉, C는 윤리적인 덕성과 자연친화적 생활을 지향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 어렸을 때 그냥 인제 남한테 피해주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그리고 인제 어렸을 때 그런 거 우유당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우유팩 같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걸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 그때부터 더 계속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씩 더(…) 그게 최초의 계기였던 거 같고, 커서는 원래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 분리수거나 이런 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그리고 바닷가를 가더라도(웃음) 쓰레기 보면 막 마음 편히 못 놀아요. (C, 일상적 참여자)

이러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살아오던 C는 기후변화·에너지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자신이 쓰는 전기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지역사람들과 미래 아이들,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마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일상적 참여자로 마을 에너지운동을 이끌고 있는 A는 삶 속에서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교의 문제의식 같은 걸 많이 거론을 하는 스타일

www.kci.go.kr

이었죠. 과에서든. 과의 문제든 학생의 문제든 그런 내가 느껴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A, 일상적 참여자)

이러한 성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아이를 기르면서 A는 생활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출생신고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2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던 경험도 있었다. 이렇게 A는 자신의 성향상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에 나서려는 태도가 있다고 했다.

내가 만약에 그게 인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를 그(…) 툭 나타내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걱정하고 그냥 말았을 텐데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거론해서 고치려는 태도가 있죠. (…)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대신 부조리한 거지만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나하고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으면 끝까지 좀 뒤를 안보는 것이 있죠. 무모함이. 그런 성향이(…) (A, 일상적 참여자)

특히 A는 고향 부안에서 방폐장 문제와 같은 에너지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경험,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은 문제의식,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결합되면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A는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당시 도서관 운영이 중심이었던 공동체에 에너지 문제를 도입하여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에너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참여자 E는 기후변화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하고 강사활동에 자원하여 현재 인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E에게 있어 이 활동은 가사일 혹은 육아로 단절되었던 사회생활을 다시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으며, E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은 주부로서 집에만 있다가 사회적인 경험, 사회활동을 하고 또 인

www.kci.go.kr

> 제 경력이 단절이 있었는데, 경력 단절로 인해 사회활동이 단절되었잖아요. 그 단절을 여는 물꼬가 되었구요. 그러면서 인제 자기 계발도 하고 하나의 의식도 생기고. 그리고 개념도 약간 생긴 거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만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 (E, 일상적 참여자)

상당 기간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지켜봐 온 마을 청년 G에게도 비슷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에너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나고, 나아가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서 직업적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이게 결국에는 약간 주민의 자존감 문제와 그리고 그 일자리, 직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주부라는 속성 자체가 없었던 것 중에 2개가 요거라고 보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사라졌던 게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랑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두 개가 사실은 에너지라는 이슈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기 개인으로서의 자존감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나가면 소일거리라도 생기는 거고. 그런 식의 2개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G, 간헐적 참여자)

이와 같이 주민들의 공동체 에너지 전환 활동에 대한 참여는 단순히 활동 자체가 전달하는 성취감, 기쁨 외에도 기존의 관심사, 성향 또는 억눌려 있던 자기 계발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단 한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각자의 관심사와 성향과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행동을 촉진하고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② 공동체 내의 관계

출산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일상적 참여자 D에게서는 개인 차원보다는 공동체 차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D에게 있어 에너지 전환운동은 혼자만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았다"라는 관계적 측면이 강했다. 결국 이 에너지운동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D는 공동체의 일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왔던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 제 성향은 보통 일반적인 주부와 같습니다.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는 편은 아니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편인데 그래도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제가 어떤 역할을 따로 하는 게 없지만 힘들더라도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힘을 모아 무엇을 이뤄나간다는 것이 참 좋은 경험으로 다가 온 것 같습니다. (…) 공동체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것 같고요. 생활 저편에 조용히 지냈었지만 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D, 일상적 참여자)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그에 따른 경험은 사실 일시적 참여자나 간헐적 참여자들 또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일시적 또는 간헐적 참여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돕는다는 측면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런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운동 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참여 제한 요인

그렇다면 피면접자들 일부를 포함해서 전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

www.kci.go.kr

을까? 마을 활동을 관찰해 온 G, K와 일시적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제한 요인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참여 제한 요인들은 크게 개인 차원, 공동체 내부 차원, 공동체 외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① 개인 차원: 부담감, 소극적 성향, 낮은 자존감

개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대한 부담감, 개인의 소극적 성향, 낮은 자존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마을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성대골 공동체에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절전소운동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거쳐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점차 운동 내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에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던 주민들은 에너지 전환운동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 에너지효율화사업과 같이 전문적이고 역량이 필요한 일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외부에서는 성대골 사례를 에너지 전환운동의 '모델'로 주목하게 되었지만 마을 내부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일'로서 에너지 전환운동을 접해야 한다는 점과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중첩되어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확실히 절전소 운동이나 에너지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마을기업을 꾸려나가는 것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 (에너지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로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그냥 일상 속에서 운동의 성격 혹은 절약을 해야 되겠다 (…) 이런 거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책임도 생겨야 되고 권한도, 부담감도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본업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오는 갈등인 거죠. 이건 에너지에 관심이 없다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사업 문제인 거죠. (G, 간헐적 참여자)

www.kci.go.kr

한편, 개인적인 성향도 전환 행동에 제약을 주는 중요한 영향 요인들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일시적 참여자 I는 공동체 참여 이전부터 대학 전공도 환경학을 고려했을 만큼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환 행동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정도에 그쳤다.

> 환경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언젠가부터 공기도 안 좋아지고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 활동은, 활동 같은 건 안했고 원래 이제는 학교 가기 전에 환경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동물 (…) 전체적으로 왜 야생동물 잡는 거 불법이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좀 하려고 하지 어디 이렇게 활동가로 나서고 그러지는 (않았죠).
>
> (I, 일시적 참여자)

I는 일상적 참여자 C, E와 같은 시기에 기후변화·에너지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했다. C와 E가 강의활동에 나선 것과 달리 I는 수강하는 데서 그쳤는데, 강의를 하고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단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 얼마 전부터 에너지기후양성강사 강의를 저기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까지 나갈 거는 별로 안 내켰고 그냥 알고 싶어서 수업 참여만 했어요. (…) 제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에너지나 원전에 대해서 많은 거를 습득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자신이 있으면 하겠는데 딱 4주 듣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그거는 좀.
>
> (I, 일시적 참여자)

성대골은 주로 주부들이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주부란 지위로 인해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교육운동이

www.kci.go.kr

나 에너지운동에 참여하도록 공감대를 유도할 수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자존감'의 문제가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가사와 육아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주부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다보니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애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새로운 일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 성대골에서도 많은 주부들이 공동체 활동 외에 따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낮은 자존감이 실제로 공동체 활동, 에너지 전환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 에너지보다도 "나는 강사를 못해."라는 그 자존감의(…)(웃음) 문제인 것 같아요. (…) 주변사람들에게 교육 한번 받아봐라고 하니까 "난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난 머리가 나빠." "난 문과야." "난 예체능이야." 뭐 그런 핑계를 대시더라고. 저는 아무상관 없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약간 주춤은 많이 하세요. "나는 그런 쪽 몰라." "나는 과학이라면 지긋지긋해." "이건 과학이 아니야."해도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 나이 또래가 아무래도 학업에 손 뗀지 오래됐고 그리고 주부의 특성상 자존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집안일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얽매여 있는 시간도 많으니깐. (…) 홍보는 하죠. 근데 아직 몇 명이 위축이 돼서 고민 중인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
> (E, 일상적 참여자)

앞서 공동체를 통해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존중이 높아지고 자기 계발에 더 열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존감이 결여된 상태는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② 공동체 내 관계: 사소한 불만과 갈등

지역공동체는 지역에서 이웃끼리 맺는 관계를 기초로 한다. 공동체는

www.kci.go.kr

시민단체와 여러 차원에서 다르지만 주체의 차원에서 비교해보자면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이 뚜렷한 목표로 모인 데 비해 지역공동체는 친밀성과 관계를 기반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적으로 공동의 운동이나 사업을 펼쳐나갈 때 더욱 분명해진다. 기업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에 속한 참여자의 경우 조직에 참여하면서 구성원간의 관계보다는 맡은 일에 대한 적합성이나 선호도 등을 일을 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구성원 간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구성원 간 친밀감과 유대감, 상호작용이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보자면, 공동체 내 관계가 좋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운동 자체에 흥미나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참여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이게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마을학교 운영하면서 그 일례를 들자면, 대표님의 아이와 뭐 다른 분 어머니의 아이가 싸웠을 때의 문제라든지(…) (웃음) 이런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에너지 때문이다. (…)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에너지를 통해서 부담이 되었던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다 이제 섞여 있는 거죠.
>
> (G, 간헐적 참여자)

성대골 공동체 내부에서도 관계 내에서 오는 사소한 갈등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

www.kci.go.kr

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러한 다양성이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에 미묘한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 엄마들이 같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다르긴 해요. 생각이나. (…) 그 성향으로 알게 모르게 속에 쌓여지는 섭섭함도 있고 그런 것도 없을 순 없다고 생각하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니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H, 일시적 참여자)

하지만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여전히 일상적 참여자들이 존재하고, 에너지 운동 혹은 직업적 차원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새롭게 공동체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이 마을 내외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공동체 외부: 사회적 낙인과 아이 학교와의 갈등에 대한 부담감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적 부담감이나 공동체 내 갈등 외에 공동체가 점점 더 외부로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데서 오는 문제도 있다. 성대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룩해 낸 성과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시각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활동을) 안 하냐면, 성대골이 에너지운동으로 더 각인될수록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봐. 내가 성대골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나 선생님이나 (마을)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아이와 내가 굉장히 이념이나 색깔이 강한, 거기에 조직원으로 알려질까 봐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성대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 집단은 저런 걸 하는 사람

www.kci.go.kr

> 들. 막 서명운동하고, 조직적으로 가서 탈핵집회를 하고, 저렇게 노란 리본을 묶어놓고. (…) 정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포장하잖아. 안 좋게. 박원순 시장의 세력으로 우리를 규정지으니까. (…) 표적감사까지 받았잖아. 여기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마을이고 박원순 시장의 조직으로 딱 낙인을 찍으니까. (A, 일상적 참여자)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선 외에도, 인조 잔디 반대운동이나 햇빛발전소 건립운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마찰이 생길 때마다 성대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 그런 낙인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학교 담임이 알게 될까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교장하고 싸웠잖아요. 햇빛발전소 때문에. 교장하고 대립각을 세우니까. 학교에서 성대골을, 교장하고 교감하고 안 좋게 지금 햇빛발전소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을 저지시켰거든. 인조잔디를 깔기 20일 만에. 그건 엄청난 일이야. 전교조가 4건을 통과를 못시키고 (인조잔디가) 다 깔렸어요. 전교조가 포크레인 앞에서 누워서 시위까지 하고도 다 깔렸거든. 그런데 여기가 (공사 중단)되면서 그 강력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죠. (A, 일상적 참여자)

> 어떤 부담감, 점점 일들이, 사업이 전문화되면서 느끼는 개인적 부담감 또는 시선, 학교와의 대립각,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발목을 붙잡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운동을 누군가가 하는 거에 대해선 지지를 하지만 내가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A, 일상적 참여자)

이렇게 공동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학교와의 대립 등이 복합적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개인 차

www.kci.go.kr

원의 문제와 공동체 내부 관계 문제에다 외부의 시선까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행동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성대골 사례는 에너지 전환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다각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6. 결론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여 심층 분석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교육운동을 진행하던 성대골 공동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벡이 개념화한 '해방적 파국'을 경험하며 자발적인 학습에 나섰고 교육을 통해 탈바꿈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에너지 시민성을 토대로 활동에 나섰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이 다시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하고 심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성대골 구성원들은 에너지 전환운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왔는데, 에너지운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도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구성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에너지 시민성의 수준과 형성되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상적 참여자'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 시민성을 체화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동체를 통한 교육 영향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가족, 이웃이라는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면서 에너지 전환 행동을 실행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있었다.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스스로 학습하거나, 교육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즉, 교육-활동-학습이 순환적으로 이

www.kci.go.kr

어지면서 에너지 시민성 또한 강화되고 있었다. 반면에 '간헐적 참여자'들과 '일시적 참여자'들은 에너지 전환 관련 교육이나 활동보다는 주로 마을 구성원들과의 대화나 관찰을 통해 인식이 높아지는 경로를 보였다. 이는 공동체의 에너지 운동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마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간에 '에너지'가 대화의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활동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는 성대골 구성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성대골 주민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함께한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내에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핵발전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교육 기회를 조직해서 교육 받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공동체 내에 성향과 기질상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지도자가 존재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성대골 구성원들은 지역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함양해 나갔다.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이전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는 했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했거나 절약을 했더라도 전력요금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관심이 주된 이유였다.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한 이후, 성대골 구성원들은 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에너지 문제를 인지하고, 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다른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피해나 미래세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현재의 에너지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성대골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 되거나 인식 확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이 동일

www.kci.go.kr

한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참여적 에너지 생산이 갖는 의미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에서 일상적 참여자와 일시적 참여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 전환 행동들 중 에너지 절약은 모든 피면접자들이 실천하고 있었지만, 일상적 참여자들은 좀 더 다양한 전환행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실천 의지와 실제 행동에서는 참여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에너지 시민성의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주로 개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운동이 기존의 관심사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자신의 성향과 맞을 때 참여자들은 보다 더 의욕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관계도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이외 다른 관심사나 에너지 전환운동이 야기하는 부담감, 개인의 소극적인 성향, 주부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이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서 일부 구성원들 간 갈등과 오해,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선과 아이들 학교와의 갈등도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에너지 시민성은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기에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 시민성의 함양과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실천을 위해서는 전환운동에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성향,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에너지운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 간 관계를 보다 더 세심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www.kci.go.kr

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외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공동체가 구성원의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면서 에너지 전환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대골 마을공동체라는 단일 사례를 조사·분석한 것이기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에 따라 인식형성의 경로나 에너지 시민성의 내용과 실천 정도, 에너지 전환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이 연구의 의의를 훼손하지는 못한다. 경험적 연구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한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전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의표집을 통해 피면접자를 선정했고 되도록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 시기와 참여 정도, 참여 지속 여부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 문서정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자 노력했지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나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피면접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어떤 요인들이 더욱 더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향후 성대골 사례와 유사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www.kci.go.kr

진행하게 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에너지 전환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더욱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요구되는 에너지 시민성 높은 시민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후변화와 핵발전 위험시대에 전 세계적 과제로 제기된 에너지 전환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16년 2월 13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3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3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3월 8일

www.kci.go.kr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Energy Citizenship in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een through the Case of SUNGDAEGOL Village in Seoul

Jongmun Park·Sun-Jin Yun

In the midst of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conflicts associated with energy use, various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at seek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rough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within local units- have been initi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ombat climate change, go beyond nuclear power and thus resolve social conflicts. This case study is centered on th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in Sungdaegol Energy Transition Village in Dongjak-gu, Seoul wher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have taken place since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By perform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 content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energy citizenship shaped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catalytic factors and constraining factor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which strongly influence energy citizenship form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local communities foster energy citizenship by being a place where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n educational arena that enables changes i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mutual trust. The study also reveals that energy citizenship of local residents is form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method and degree of participation; various factors including persona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an either promote or constrain participation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for mor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www.kci.go.kr

are differences in interests, preferences and desires among residents; have more diverse activities and projects; increase efforts to shar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and make efforts for energy transition prevalent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avoid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eing interpreted as political activities.

Keywords: energy transition, local community, community energy, energy citizenship, Sungdaegol, emancipatory catastrophism, metamorphosis,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n Seoul

www.kci.go.kr

참고문헌

권용덕·김덕주·허종구·안점판. 2012.「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방안」. ≪정책포커스≫, 2012-18호, 1~62쪽.

남궁근. 2013.『행정조사방법론』제4판. 법문사.

문승규. 2015.「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동체시설에 대한 연구: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 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문. 2015.「도시 지역공동체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서울시 성대골 에너지 전환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희. 2009.「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전북 부안 하서면을 사례 지역으로」. ≪환경과 생명≫, 통권 61호, 157~177쪽.

_____. 2013.「시민 참여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철학: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를 토대로」. ≪환경철학≫, 16권, 159~188쪽.

서울특별시. 2012. "올해 서울시 환경상 대상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선정'". 보도자료. 2012.06.05.

성대골 착한에너지 지킴이들. 2013.『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동작구 성대골 마을이야기』. 성대골사람들.

오혁진. 2006.『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유제훈. "[살아나는 마을] 청년들의 유쾌한 도전, 동작구 '청년플랫폼'". ≪아시아경제신문≫, 2015.01.12.

윤순진. 2006.「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반핵운동의 환경변화와 반핵담론의 협소화」. ≪시민사회와 NGO≫, 제14권 1호, 277~311쪽.

_____. 2008.「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가능성: 지속불가능성의 지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8권, 12~56쪽.

_____. 2011.「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시민인식의 현주소」.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31, 181~200쪽.

_____. 2015.「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13권 1호, 77~124쪽.

윤순진·이유진. 2008.「제5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에너지 자립」. 박순애·윤순진·문태훈·조용성·김정인.『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 서울: 법문사.

윤순진·김소연·정민지. 2011.「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관성과 역돌출부에 대안 대응을 중심으로」. ≪ECO≫, 제15권 2호 147~155쪽.

윤순진·심혜영. 2015.「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www.kci.go.kr

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140~178쪽.
윤혜정. 2008.「지역시민조직에 의한 지역학습공동체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이승지. 2011.「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에너지에 대한 환경, 사회적 가치 인식 비교: 제주 동광 태양광 그린빌리지와 홍성군 홍동면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5권, 197~235쪽.
이유진. 2009.「[지역에너지분과] 집중·의존에서 분산·자립으로: 에너지 자립형 지역 만들기」. ≪전국지역리더대회≫, 235~268쪽.
_____. 2010.「석유시대를 대비하는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을 중심으로」. ≪국토≫, 2010년 12월호(통권 350호), 28~35쪽.
_____. 2012.「농촌형 에너지자립체계 수립: 현황과 전망」.『한국유기농업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쪽~66쪽.
_____. 2013.『전환도시』. 한울.
이정필·한재각. 2014.「영국 에너지 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ECO: 환경사회학연구≫, 제18권 1호, 73~112쪽.
이필렬. 2005.「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지속인가 생태적 전환인가」. ≪창작과 비평≫, 제33권 4호(통권 130호), 98~110쪽.
이현민. 2008.「'상처'를 딛고 에너지 자립 마을로: '핵폐기장'을 넘어 대안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부안 등용마을」. ≪환경과 생명≫, 2008년 가을호(통권 57호), 178~193쪽.
이현애. 2004.「지역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변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지웅·이성우·정득진·고순철. 2002.『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은정. 2008.「마을 만들기의 환경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허 준. 2006.「사회운동에 나타난 공동체학습 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덕화·이영희. 2014.「한국의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시티즌십」. ≪ECO: 환경사회학연구≫, 제18권 1호, 7~44쪽.
홍현진. "20대 청년과 40대 아줌마의 만남 '상상도 못했는데'." ≪오마이뉴스≫, 2015.01.08.

Beck, Ulrich. 2015. "Emancipatory Catastrophism: What Does It Mean to Climate Change and Risk Society?" *Current Sociology*, 63(1), pp. 75~88.
DECC. 2014. *Community Energy Strategy: People Powering Change*. Department of Energy &

www.kci.go.kr

Climate Change, United Kingdom.

Devine-Wright. P. 2007. "Energy Citizenship: Psychological Aspects of Evolution in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Governing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pp. 63～86.

Fryer. R. H. 1999. *Creating Learning Cultures: Next Steps in Achieving the Learning Age*. Second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Group for Continuou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heffield. England: NAGCELL.

Hillery. G.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 20, pp. 111～123.

Marshall. T. H. 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김윤태 옮김. 2013.『시민권과 복지국가』. 서울: 이학사.

Stein. D. S. 2002. "Creating local knowledge through learning in community: A case study."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002(95), pp. 27～40.

Walker, G., Cass, N. 2007. "Carbon reduction, 'the public', and renewable energy: engaging with socio-technical configurations." *Area*, 39(4), pp. 458～469.

Walker, G., Devine-Wright. 2008. "Community renewable energy: What should it mean?" *Energy Policy*, 36(2), pp. 497～500.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신경식·서아영 옮김. 2005.『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_____. 2010.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박지연·이숙향·김남희 옮김. 2013.『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서울: 학지사.

www.kci.go.kr